



모바일 웹 2.0 표준화 동향 및 전망

목 차

1. 서 론
2. 모바일 웹 2.0 개념
3. 모바일 웹 2.0 서비스 및 기술 동향
4. 모바일 웹 2.0 표준화 동향
5. 모바일 웹 2.0 향후 전망 및 대응 전략
6. 결 론

이승윤 · 정해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1. 서 론

최근 애플의 아이폰의 출시 그리고 국내 풀 브라우징 단말의 등장으로 인해 휴대폰은 새로운 인터넷 정보 단말기로서 변모를 꾀하면서 새로운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등장한 웹 2.0의 개념은 이제 데스크탑 PC를 넘어서 휴대폰 등과 같은 모바일 단말에서 새로운 서비스와 비즈니스의 가능성을 제시하며 모바일 웹 2.0 개념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 모바일 서비스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 등장을 예고하고 있다.

과거 WAP 기반의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이동통신사의 망 개방과 함께 점차 웹 기반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곧 휴대폰에서도 기존 유선망에서 이용되던 다양한 웹 응용과 서비스들을 자유롭게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용자 요구의 자연스러운 수용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이동통신 시장은 풀 브라우징(Full Browsing) 서비스를 앞 다투어 제공하기 시작했으며, 유선에서의 다양한 웹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모바일 서비스 제공을 준비하고 있다. 이러한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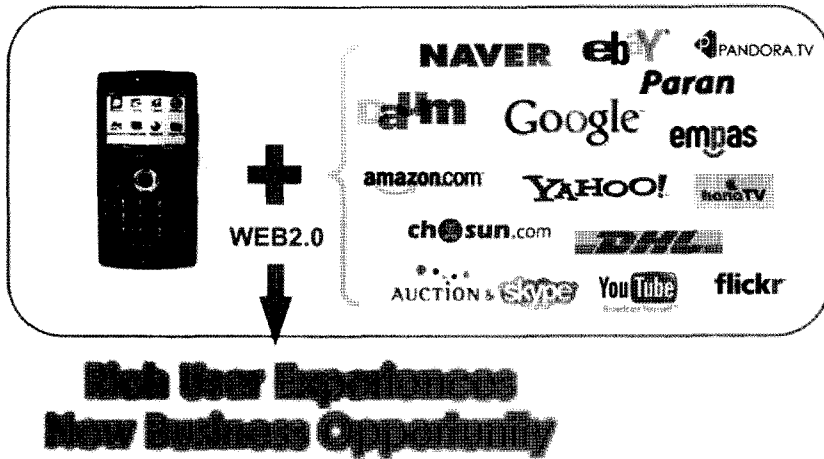
바일 서비스의 변화는 모바일 콘텐츠 유통 구조와 이용 방법에 대한 혁신적 변혁을 예고하고 있으며, 기존 모바일 서비스 환경과 비즈니스 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고에서는 모바일 웹 2.0의 기본 개념과 관련 기술 및 표준화 동향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향후 발전 방향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한다.

2. 모바일 웹 2.0 개념

모바일 웹 2.0을 한 마디로 정의하기는 힘들지만, 우선 기존 웹 2.0이 시사해준 미래의 성공적인 서비스를 위한 여러 가지 요건들이 이동단말을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환경에서 어떻게 충족될 수 있도록 하는 가를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모바일 환경이 갖는 특징적인 요소들 어떻게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로 최적화시키고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가 바로 모바일 웹 2.0의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플랫폼으로서의 모바일 웹”은 모바일 웹 2.0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다양한 모바일 단말과 서



(그림 1) 모바일 웹 2.0 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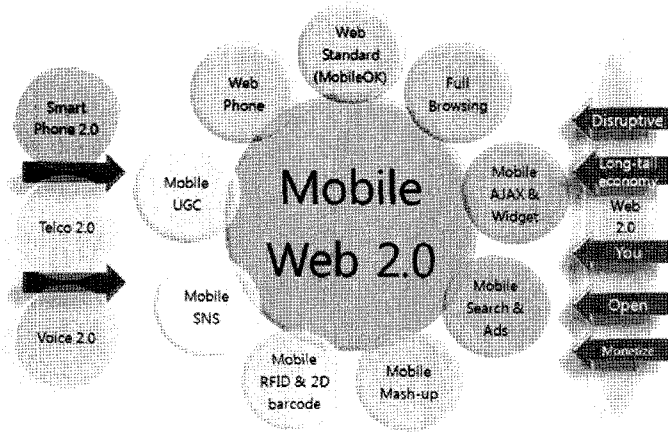
비즈니스들이 모바일 웹 플랫폼을 통해서 심리스하게 제공되어짐을 의미한다. 기술적으로는 웹 표준 방식의 응용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연스러운 유무선 환경의 통합이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모바일 서비스 환경이 현재의 울드가든(Walled Garden) 기반에서 오픈가든(Open Garden) 기반으로 변화될 것도 예측하고 있다. 이것은 모바일 서비스가 유선 웹 환경과 결합되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갖는 모바일 응용과 서비스들이 출현하는 등 엄청난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모바일 웹 2.0의 특징들로 인해 현 모바일 산업의 변화와 새로운 비즈니스 경쟁구도를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으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3. 모바일 웹 2.0 서비스 및 기술 동향

현재 모바일 웹 2.0 개념을 모두 만족하는 서비스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모바일 웹 2.0이 지향하는 개방형 비즈니스 측면의 변화를 모두 반영한 형태의 응용이나 서비스가 아직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바일 웹 2.0 시대로 진입하기 위한 매우 다양한 시도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

며, 모바일 웹 2.0의 개별적인 특징들을 반영한 서비스들은 이미 다양한 형태로 시작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미 일본에서는 발전된 모바일 인프라와 망 개방을 통한 새로운 모바일 응용 서비스 제공과 관련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유럽에서는 모바일 플랫폼을 중심으로 관련 기술개발이 시도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선도적인 웹 2.0 기업을 중심으로 진보된 형태의 모바일 웹 서비스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최근 구글의 안드로이드(Android) 플랫폼과 애플의 아이폰의 등장은 모바일 웹 2.0 시대로의 진입을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들어 이통3사 모두 폴브라우저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유선 웹 서비스를 모바일 환경에서 수용하려는 시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도 모바일 환경 변화의 큰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모바일 웹 2.0의 주요 기술 동향들은 (그림 2)와 같이 9가지 동향들로 분류할 수 있는데, 모바일OK와 같은 웹 표준 준수를 기반으로 폴브라우저, 모바일AJAX 및 위젯, 모바일 매쉬업, 모바일 SNS 서비스 등이 향후 모바일 웹 2.0 응용 서비스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이러한 서비스의 성공과 가속화 요인으로 웹 2.0의



(그림 2) 모바일 웹 2.0 동향

사용자 중심 서비스, Disruptive 비즈니스, 롱테일 효과 등과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하는 모바일 단말 환경의 개선 등이 접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기술적 동향들은 웹 2.0 동향과 같은 외부적 변화와 모바일 산업 내부의 환경적 변화 속에서, 기존 모바일 환경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하면서 다양한 새로운 모바일 응용의 가능성을 찾고자 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들이다[2].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모바일 웹 환경 자체에 대한 인프라 또는 플랫폼 측면의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모바일 웹 2.0 환경으로 전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선결 요건이라고도 할 수 있다. 실제로 최근 풀 브라우징 서비스의 등장은 사용자에게 새로운 문제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유선 환경에 존재하는 비 표준 서비스 구현 기술(예: ActiveX 등) 등은 풀 브라우징 서비스의 한계 상황을 들어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유선 웹 콘텐츠 개발시 모바일에서도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표준을 고려하는 것이며, 모바일OK 표준화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4. 모바일 웹 2.0 표준화 동향

모바일 환경에서의 웹 표준 역사는 초기 저 사양 단말을 대상으로 하는 WAP 포럼(현 OMA)의 WML 기반의 WAP 표준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WAP 기반의 모바일 웹 서비스는 이동통신사가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콘텐츠 서비스 제공 구조 때문에 월드가든 서비스를 고착화하였으며, 특히 국내의 경우 이통사 별로 서로 다른 마크업 규격(WAP 기반)사용으로 인해 모바일 콘텐츠를 제공하려는 CP나 포털 입장에서는 콘텐츠 중복제작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웹 2.0 개념의 등장과 풀 브라우징 서비스 출현과 함께 유무선 연동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모바일 웹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존 WAP 기반 모바일 웹 서비스는 WEB 기반 모바일 웹 서비스 환경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변화와 새로운 요구들로 인해 W3C(월드와이드웹컨소시엄)는 유선과 무선이 하나가 되는 모바일 웹 표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5년 부터 W3C내에 MWI(모바일 웹 이니셔티브)라는 새로운 Activity를 신설하여 관련 표준 개발을 시작하였으며, 국내에서도 ETRI,

SKT, 삼성전자 등이 W3C MWI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내 모바일 웹 표준화에 시동을 걸었다. 2007년에는 국내 산업체가 중심이 되어 모바일 웹2.0포럼을 창립하면서 국내 모바일 웹 표준화 활동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4.1 모바일 웹 표준의 필요성

모바일 웹 표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말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바일 환경에서 웹 콘텐츠와 웹 응용을 일관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는 단말과 브라우저의 성능, 콘텐츠의 비표준화에 따른 호환성 문제 그리고 유무선 환경의 차이, 폐쇄적 서비스 환경과 같은 많은 문제들로 인해 모바일에서 웹을 이용하기 어려운데,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이통사나 단말의 종류에 무관하게 다양한 웹 응용과 웹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관련하여 W3C의 MWI에서는 모바일OK 라는 표준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 웹 표준을 모바일 환경에서 그대로 사용하기 위한 모범사례(Best Practice) 표준을 중심으로 단말정보 표준 등을 개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모바일웹2.0 포럼 창립을 통하여 산업체 중심의 모바일 웹 표준 개발을 시작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모바일 웹 서비스는 매우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제공에 비해 이통사 별로 각기 다른 규격 사용에 따른 콘텐츠 개발의 비효율성과 최근 풀 브라우징 서비스 출시와 함께 모바일 환경에서 유선 웹 사용시 액티브X 등 비표준 콘텐츠에 의한 서비스 제약 등이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유무선 통합 웹 표준의 필요성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풀 브라우징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단순 웹 콘텐츠 이용에 대한 호환성을 넘어서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의 콘텐츠가 아닌 서비스 차원의 심리스한 연동이 더욱 중요하며, 실질적인 모바일 서비스의 부가가치

는 여기서 창출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에 기반한 모바일 웹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은 향후 국내 모바일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4.2 모바일 웹 표준의 핵심 요소

모바일 웹 표준의 핵심은 유선과 무선의 웹 콘텐츠와 서비스가 단일화된 플랫폼 상에서 서비스 되는 것이며, W3C에서는 One Web 이란 말로 참조되기도 한다. 즉 웹 콘텐츠에 대해서 다양한 단말 서비스를 위해서 One Source Multi Use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다. 물론 완전한 One Web을 실현하는 것은 다소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한 준비차원에서 단계적인 표준화 및 적용 보급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표준 관점의 개발 적용 노력이 요구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모바일 환경에서의 웹 표준을 유선과 동일한 규격화 하는 것이 필요로 되며, 모바일의 특수성을 고려한 저작 가이드라인 등이 요구된다. 또한 이러한 유무선 통합 웹 표준 콘텐츠가 서로 다른 모바일 단말에 최적화되어 서비스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준 기반의 단말정보 기술 및 교환 기술 등이 필요로 된다. 아울러, 이러한 유무선 통합 모바일 웹 콘텐츠 및 단말정보 처리에 대한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모바일 웹 표준(모바일OK) 기반의 콘텐츠 시험 및 인증 작업도 필요로 될 것이다. 특히 시험 인증은 모바일OK 표준을 준수하는 웹 콘텐츠 개발과 확산 그리고 활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표 1 참조).

또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현재의 풀 브라우징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단순 웹 콘텐츠 이용에 대한 호환성을 넘어서 유무선 통합 환경에서의 콘텐츠가 아닌 응용 및 서비스 차원의 심리스한 연동이 더욱 중요하며 이에 따른 모바일OK 기반의 모바일 웹 응용 관련 표준 개발이 필요로

된다. 실질적인 모바일 웹 서비스의 부가가치는 여기서 창출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표준에 기반한 모바일 웹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은 향후 국내 모바일 산업 경쟁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표 1〉 모바일 웹 표준화 핵심 요소

모바일 웹 표준 핵심요소	세부내용	비고
유무선 통합 웹 콘텐츠 표준	유무선 웹 콘텐츠에 대한 통합 이용을 위한 웹 표준 (모바일OK 표준) - 모바일 웹 모범사례 표준 - 모바일 웹 콘텐츠 변화 표준	인프라
단말정보 처리 표준	표준 방식의 단말정보 제공 환경 마련	인프라
시험인증 표준	유무선 통합 모바일 웹 콘텐츠 보급 및 확산을 위한 콘텐츠 시험 및 인증 서비스	인프라
모바일 웹 응용 표준	유무선 통합 웹 표준 환경 기반의 응용 및 서비스 표준 (브라우저 호환성, AJAX, 워젯, 매쉬업, SNS, UGC, 뱅킹 등)	서비스

4.3 국외 모바일 웹 표준화 현황

모바일 웹 표준은 현재 W3C의 MWI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바일웹 브라우저 환경의 호환성 확보와 유무선 웹 콘텐츠간의 효과적인 연동을 위한 목적 하에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활용을 위한 모범사례 및 가이드라인, 모바일 단말 정보 공유 활용 방안 등에 대한 표준화를 진행해오고 있다. 또한 모바일에서의 표준 웹 콘텐츠 인증을 위해 모바일OK 인증 표준화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진행된 1단계 표준화 활동에서는 두 개의 WG - BP(Best Practice) WG 및 DD(Device Description) WG - 을 구성하여 활동을 진행하여 왔고, 2단계 활동을 시작하면서 TS(Test Suite) WG이 추가되었으며, 개발도상국에서의 모바일 웹을 위한 IG(Interest Group)이 추가되어 현재 총 4개의 그룹이 활동하고 있다(표 2 참조).

〈표 2〉 W3C MWI Activity 내 활동 워킹그룹 현황

WG 명칭	주요업무
BPWG (Best Practice WG)	유무선 통합 모바일웹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범사례 기반의 모바일OK 표준화 (웹 콘텐츠 표준) * 운영 작업반(TF): Checker TF, Korean TF, MobileOKPro TF, Accessibility TF, ContentTransformation TF
DDWG (Device Description WG)	단말 비종속 모바일웹 서비스를 위한 단말 정보 표준화
TSWG (Test Suite WG)	모바일 브라우저 등에서의 Test Suite 개발
Mobile Web for Development IG	개발도상국에 모바일 웹 적용을 위한 각종 활동 추진
MWI-SC (Steering Committee)	W3C MWI 표준화 방향 등에 대한 의사결정 기구 (위원회)

4.3.1 BP(Best Practice) WG 주요 표준화 이슈

BPWG은 모바일 웹 환경에서 콘텐츠 저작 및 활용에 대한 모바일 웹 모범사례와 이에 기반한 시험방안 등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초기 BPWG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1단계 활동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하였으나, 그 기한을 연장하여 2007년 말에 Best Practice 1.0 권고안에 기초한 MobileOK Basic Test 1.0 문서 초안 개발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부터 2단계 활동을 시작하고 있다.

현재 BPWG에서 활발하게 작업 중인 두 가지 이슈는 콘텐츠 변환(CT: Contents Transformation) 작업반(TF)의 업무와 BP(Best Practices) 2.0 문서 작업들로서, 최근 WG회의를 통해 CT Guideline 문서를 최종 LCWD(Last Call Working Draft)로 만들기 위한 13건의 이슈 논의와 해결을 하였으며, non-normative 문서로 되어 있는 CT 문서를 normative 문서로 격상하기 위해 charter 수정과 활동기한을 2009년 6월까지 활동 연장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모바일OK 검사도구인 mobileOK 체커 모듈의 개발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BP 1.0 문서가 최종 표

<표 3> W3C BPWG 주요 표준화 계획(출처: W3C MWBP WG)

Specification	Milestones				
	FPWD	LC	CR	PR	Rec
mobileOK Basic: Tests 1.0				Q2 2007	Q3 2007
mobileOK Scheme	Q2 2007				
mobileOK Basic checker: Reference Implementation and Test Suite	Q3 2007				
mobileOK Labels		Q4 2007		Q1 2008	
Mobile Web Best Practices 2.0	Q4 2007	Q3 2008			Q4 2008
mobileOK Tests (second level)	Q4 2007			Q3 2008	Q4 2008
Standard Delivery Context (advanced)		Q2 2008			
Future of Best Practices	Q3 2008			Q4 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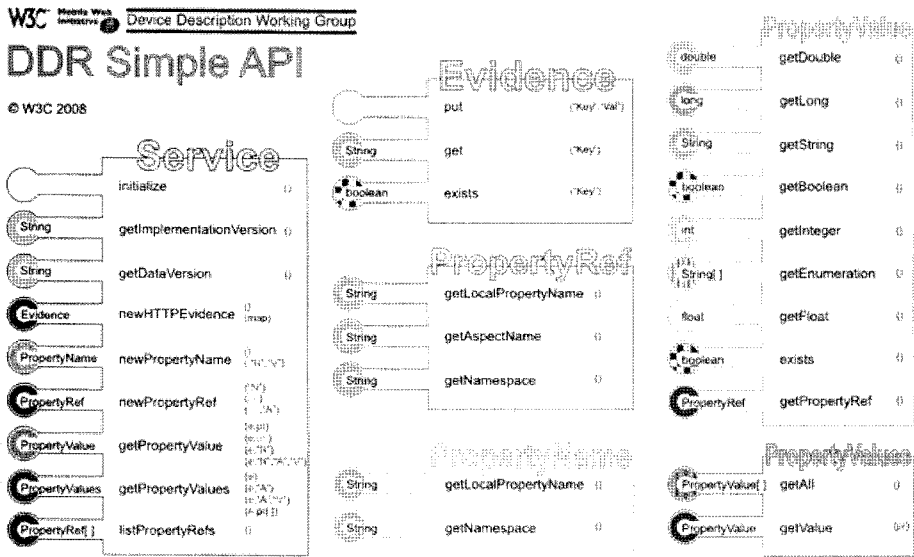
Note: The group will document significant changes from this initial schedule on the group home page.

	2008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27	28	29	30	31	1	2	3	4	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Publications																												
Meetings																												
Best Practices 1.0																												
Application Best Practices																												
mobileOK Basic Tests																												
mobileOK checker																												
mobileOK Pro Tests	CR?																											
mobileOK specifications	None?																											
CI Interactions	None?																											
CI interfaces	LC?																											
Korean gap analysis																												
Korean new standards																												
Korean mobileOK test report																												
Events																												

(그림 3) W3C BPWG 산출물 계획 (출처: W3C MWBP WG)

준안으로 확정되는 7월15일 또는 16일에 맞추어 checker 1.0 정식 버전으로 발표하기로 하였다. 한편, BP 2.0 문서는 Mobile Web Application Best Practice로 방향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이런 관점에서의 세부 파트별 이슈들과 추가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 논의를 하였고, ETRI에서 기고한 One Web에 대한 부분, HTML과 Javascript 분리에 관한 statement 추가 부분을 모두 받아들여 수정/보완하기로 하였으며,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7월 말까지 첫번째 공개용

WD를 만들어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한편 mobileOK Pro 문서는 더 이상 추진하지 않고 그룹 노트 형식으로 최종 정리하여 Basic Test의 부록으로 추가하기로 하였으며, mobileOK Pro TF의 공식 활동은 종료시켰다. mobileOK 라이선스에 대해서는 mobileOK 모범사례(Basic Test)를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하기로 하였으며, mobileOK 로고 사용에 관한 조건과 관련 라이선스 문서를 최종 확정하여 공개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림 4) W3C DDR Simple API 참조 구현 사례

4.3.2 DD(Device Description) WG 주요 표준화 이슈

DDWG은 다양한 단말에서 보다 효과적인 모바일 콘텐츠 표현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주요 장치 표현 정보를 분석하고, 다양한 디바이스들의 특성과 정보를 공유·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모바일 단말의 특성 정보 활용 기술에 대한 표준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 나와 있는 W3C CC/PP, JSR188, SADIc, OMA UAProf, WURFL 등과 같은 다양한 디바이스 정보표현 기술(device description) 방법들을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장치 기술 방법에 대한 기술 문서를 만드는 것을 1단계 기본 목표로 시작하여, DDR에 관한 요구사항을 워킹드래프트로 만들고, Landscape/Ecoscape 문서를 그룹 노트(Group Note)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1단계 활동을 종료하고, 2006년 11월부터는 2단계 활동을 시작해오고 있다.

DDWG은 2005년부터 2006년까지 1단계 활동을 통해 단말 정보 교환에 대한 다양한 현행 기술 분석과 모바일 웹 활용성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모색하였고, 2006년 하반기부터 2008년 6월까

지 예정된 2단계 표준화 활동을 통해 DDR (Device Description Repository)에 대한 요구사항, DDR Simple API, DDR을 위한 단말 정보 온톨로지 등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개최된 DDWG 회의에서는 DDR Simple API에 대한 LCWD 상태에서의 코멘트들에 대해 논의하고, PR(Proposed Recommendation) 상태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이슈들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4.4 국내 모바일 웹 표준화 현황

국내에서의 모바일 웹 표준화 활동은 2007년 3월 모바일웹2.0 포럼이 발족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하였으며, 국내 산업체 요구사항을 반영한 표준개발과 국내 요구사항의 국제표준 반영 등을 목표로 표준화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모바일웹2.0 포럼(의장 김진홍/SK텔레콤)은 “국내 모바일웹 산업 활성화”와 “휴대폰을 통한 편리한 웹 사용”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창립되어, 지난 2007년 12월 “한국형 모바일 웹 모

범사례 1.0"을 비롯한 총 8건의 포럼 표준과 4건의 TTA 정보통신 단체 표준을 확정 한 바 있다 (표 5 참조). 또한 지난 2007년 한 해 동안 개발 한 "한국형 모바일OK" 1단계 표준에 대한 실증 시연 수행 한 바 있다.

현재 모바일웹2.0 포럼은 현재 4개의 WG(응용기술WG, 콘텐츠WG, 시험인증WG, 단말정보WG)과 1개의 TF(모바일OK TF) 그리고 표준 기획위원회를 두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각 WG에서는 모바일웹 2.0의 핵심 이슈와 모바일 OK 관련 기술 표준 개발을 목표로 로드맵과 표준화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기반 한 표준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표 4 참조).

<표 4> 모바일웹2.0 포럼 활동 현황

WG/TF 명칭	주요업무	의장
응용기술 WG	차세대 모바일웹 응용 기술 표준화	이순호/SKT
콘텐츠 WG	모바일웹 콘텐츠 표준화 (W3C BPWG 대응)	신재경/NHN
단말정보 WG	모바일 단말정보 표준화 (W3C DDWG 대응)	구경희/삼성전자
시험인증 WG	모바일웹 표준의 시험 및 인증 표준화 (W3C TSWG 대응)	차순일/TTA
모바일OK TF	모바일OK 표준 검증을 위한 시범서비스 추진	이승운/ETRI
표준기획위원회	표준 검토 및 승인 기구	이승운/ETRI
운영위원회	최종 표준 및 포럼 사업 승인 기구	김진홍/SKT

<표 5> 모바일웹2.0 포럼 개발완료 표준(2007년 12월 기준)

No	포럼 문서번호	포럼 표준명	담당 워킹그룹
1	MW2.SD-0001	모바일OK 인증체계 1.0	시험인증WG
2	MW2.SD-0002	KMOK(Korean Mobile OK) 검사도구 요구사항	시험인증WG
3	MW2.SD-0003	한국형 모바일웹 모범사례 표준 1.0	콘텐츠WG
4	MW2.SD-0005	한국형 DDC 1.5	콘텐츠WG
5	MW2.SD-0007	한국형 모바일OK 요구사항	모바일OK TF
6	MW2.SD.0010	KMOK(Korean Mobile OK) 시험인증 요구사항	시험인증WG
7	MW2.SD-0013	단말 정보 언어 요구사항	단말정보WG
8	MW2.SD-0014	단말 정보 언어 명세	단말정보WG

5. 모바일 웹 2.0 향후 전망 및 대응 전략

모바일 웹 표준화는 향후 유비쿼터스 환경에서의 유무선 통합 웹 콘텐츠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한 핵심 사항이며, PC 이외의 다양한 모바일 및 유비쿼터스 단말 상에서 효과적인 웹 콘텐츠와 관련 응용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적인 표준화 이슈이다. 또한 최근 출시되고 있는 풀 브라우징 서비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적절한 콘텐츠 표준화 없이 브라우저만으로는 완전한 풀 브라우징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며, 따라서 모바일OK와 같은 모바일 웹 표준 개발과 조기 보급은 현 풀브라우징 서비스 문제를 극복하고 모바일웹2.0 환경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모바일웹 표준화는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웹2.0 응용 및 차세대 모바일 콘텐츠 산업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표준화 이슈로서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결국 모바일OK 표준 기반의 모바일 웹 서비스가 본격화 되면 이제 휴대폰에서도 유선의 웹 콘텐츠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하고 경쟁력 있는 모바일 서비스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유선에서 확산되고 있는 지도 기반의 매쉬업, 블로그, SNS 등 다양한 웹 2.0 서비스들을 휴대폰에서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이러한 환경 변화에 있어 기존 모바일 산업의 주요 사업자들은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안고 있어, 현재 주도권을 지닌 기존 이통 사업자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개방된 환경에서 다양한 사업자들이 무한 경쟁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모바일 웹 2.0 환경의 전략적 도입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하지만 모바일 웹 2.0 환경으로의 진화는 분명한 글로벌 트렌드이며 향후 서비스의 경쟁력과 국제 경쟁력 등을 고려했을 때 전략적으

로 조기 대응을 위한 정책개발과 이를 기반으로 한 조기 이행이 필요로 된다. 특히 관련 국제표준 개발에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러한 대응을 위한 핵심 사항이다.

6. 결론

모바일 웹 2.0은 차세대 모바일 서비스의 새로운 비전으로서 기존 모바일 비즈니스의 가치사슬을 새롭게 재구성할 것이다. 즉 사용자에게는 유무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신개념의 편리한 모바일 서비스 환경으로 다가설 것이고, 사업자에게는 포화된 가입자 기반의 한계적 수익구조를 극복하고 개방형 서비스 기반의 새로운 수익 모델을 제공할 것이며, 포털 등의 콘텐츠 사업자에게는 유무선 통합 서비스 기획의 확대에 의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그리고 단말제조사에게는 다양한 컨버전스 서비스 요구의 급증에 따른 단말 수요의 극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즉 기존의 가치사슬 구조의 비즈니스 구조는 보다 생태계(ecosystem)적인 관점의 비즈니스 구조로 변화하게 될 것이며, 이를 이해하는 대응 전략이 바로 미래 서비스에서 자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일 것이다.

결론적으로 모바일OK 기반의 모바일웹 표준화는 모바일웹 2.0 플랫폼과 생태계를 만드는 기반이 될 것임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며, 이는 사용자와 서비스제공자 모두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이익을 가져다 줄 것

으로 기대한다. 결국 모바일 산업과 모바일 웹 2.0 기술이 진정한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준에 기반 하면서 개방된 구조와 기술로 사용자의 참여를 극대화시키고 위험을 분산하면서 네트워크 효과를 최대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지향할 때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 [1] 이승윤, “모바일 웹”, TTA 저널 No.117호, 2008년 5월.
- [2] 이승윤, “모바일 웹 2.0”, IT투데이, 2008년 4월호.
- [3] 이승윤, 전종홍, “내 손안의 웹2.0, 아이폰”, IT-SoC Magazine ,2008년 1월호.
- [4] 전종홍, 이승윤, “모바일 웹 2.0 기술 전망”, Telecommunications Review, 제17권 4호, 2007년 8월, ISSN 1226-5586.
- [5] 전종홍, 이승윤, “웹 2.0 기술 현황 및 전망”, 전자통신동향분석 제21권 제5호, 2006년 10월.
- [6] 김형진, “아이폰이 이동통신 시장에 던지는 화두,” LG 주간경제, 947호, 8월, 2007년, 20-24.
- [7] W3C Mobile Web Initiative, <http://www.w3.org/Mobile/>
- [8] 모바일 웹 2.0 포럼, <http://www.mw2.or.kr>

저자약력



이 승 운

1999년~현재 ETRI 표준연구센터, 선임연구원
2003년~현재 ETRI 표준연구센터 서비스융합표준
연구 팀장
2006년~현재 APT ASTAP IRT Expert Group 라포처
2006년~현재 TTA 웹프로젝트 그룹 (PG605) 의장
2006년~현재 ITU-T SG13 에디터
2007년~현재 모바일웹2.0 포럼 표준기획위원장,
모바일OK TF 의장
2008년~현재 W3C BPWG Korean TF 리더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표준연구센터
서비스융합표준연구팀 팀장
관심분야 : 차세대 웹, 모바일 웹, 유비쿼터스 웹,
IPTV, 차세대인터넷 등
이 메 일 : syl@etri.re.kr



정 애 원

1982년~현재 ETRI 표준연구센터장
1997년~2007년 ETRI 라우터, 10 G 이더넷, 무선LAN
기술개발 과제책임자
2001년~현재 대한전자공학회 학회지편집위원장
2006년~현재 한국통신학회 이사, 교환 및 라우팅연구회
위원장
2002년~현재 IEEE 대전색션 멤버쉽개발당
2007년~현재 연남대학원 광대역네트워크공학과
전공책임교수
관심분야: 차세대인터넷, IPv6, BcN, LAN, 차세대웹 등
이 메 일 : hw-jung@etri.re.kr